

과거 30년을 넘어, 미래 30년을 향한 민선 지방자치

자치CEO



임택
광주 동구청장

1995년 6월 27일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처음 치러진 날이다. 주민들이 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는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다.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긴 여정 끝에 지방자치가 이뤄낸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어 지역 특색과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쌓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마을공동체 사업, 성공적인 도시재생·재개발 사업, 주민자치회 전환·운영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물론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했다.

필자 역시 오랜 기간 지역민들 속에서 28년째 '풀뿌리 정치인'으로 성장해 온 장본인이기에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다행히도 지방자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이뤄낸 결실은 다수의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도입된 이래 동구는 지난 2016년 산수1동을 시범 동으로 지정, 2023년 13개 행정동 전체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며 역량을 키우고 그 진가를 발휘했다.

광주 동구만의 '민(民) 주도 마을복지'의 기틀을 다진 마을사랑채와 도시브랜드 '인문도시 광주 동구'는 타 지역의 벤치마킹 사례이자 소통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 2019년 8월 자산2동을 시작으로 올 연말이면 동 전체 조성을 마무리하는 마을사랑채는 주민들을 위한 소통 창구이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참좋은 지방자치정책대회'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수상,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공동체 역량 분야) 우수상',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 정책 특별상' 등 다수의 수상 이력이 입증해 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30년간 결집된 '지방자치의 힘'은 국가적 위기는 물론, 지역사회 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지난 3년 4개월간의 코로나 19 장기화, 각종 재난·재해, 비상계엄, 탄핵 찬반 집회 등에서 광주 시민이 보여준 촛불집회 등 자발적인 결속력은 위대했다. 민선 7·8기 출범 이후 동구의 긍정적인 변화도 한몫을 톡톡히 했다. 오랜 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른 쇠락한 도시 이미지를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도시'로 바꾸고, 성공적인 도시개발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으로 10만 명 회복에 이어 구

준한 인구 유입에 성공했다.

특히 우리 동구는 늘 시대의 화두에 주목해 왔다. 자치분권, 지속가능한 도시, 지방·인구소멸 등 시대가 겪는 위기를 직면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동구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 243개 기초 광역자치체도 비슷하다. 각 지자체마다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7월 도시브랜드 '인문도시 광주 동구'를 선포했다.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인문'에 출발점을 두고, 주민들과 함께한 인문 활동이 맺은 6년 결실이 도시브랜드로 거듭나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제 성년을 넘어 청년이 된 민선 지방자치의 화두는 '지방분권 개헌'이다. 여전히 정부의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앙집권적 구조는 지방 주도의 지역발전 정책을 가로막고, 사상누각(沙上樓閣) 형상과 진배없다. 광주 5개 자치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목표는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자율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한 지방 재정 분권의 강화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다. 과거 30년을 넘어, 미래 30년을 준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 인문도시 광주 동구가 함께 나아가길 지향점은 '지방분권형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위상 정립', '자치행정·재정·조직권의 확대'를 실현 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독자투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새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를 맞이한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학교폭력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이기도 하다. 친구를 사귀는 과정에서 서열을 나누거나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일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 폭력까지 확대되며, 그 형태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범죄다. 피해 학생은 심리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고, 심한 경우 학교생활을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

신학기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자

다. 따라서 경찰과 학교,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노력해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폭력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117 상담센터와 안전 Dream 앱과 같은 다양한 신고 채널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학교폭

력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에서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모른척하지 말고 용기 내어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부모 역시 자녀의 작은 변화도 세심하게 살피고, 대화 속에서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안전한 학교는 경찰,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때이다. **양성빈** (보성경찰 경무계 순경)



기고 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예술이 만든 기적, 기부 천사와 미술 치유

지난 1월, 광주 동구 소태동 갤러리 생 각상사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 '소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전시회다. 봉선동 소화천사의집 발달 장애인 5명의 아르브뤼(Art Brut) 작품을 선보인 전시였다. 이들은 2021년부터 주홍 미술 작가의 지도로 창작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천진난만한 색채와 소박한 선으로 점차 독창적인 작품을 탄생시켰다. 이번 전시는 미술을 통한 성장과 치유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아르브뤼는 전통적 예술 교육을 받지 않은 작가나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의 작품을 지칭한다. 이 작품들은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오는 본연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다. 비정상적이거나 기이한 형태지만 더욱 독창적이고 능능적이다. 아르브뤼는 단순한 장작을 넘어,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전시회 직후 한 지역 기업 대표가 광주 문화재단에 기부 의사를 밝혔다. 주홍 작가의 미술 치유 활동에 감명받아, 치유 프로그램이 지속되길 바란다는 의미다. 예술치료학 박사인 주홍 작가는 발달 장애인에게 미술 치유 프로그램과 '아르브뤼 전시'를 운영했다. 또한 오월 어머니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오월어머니들의 그림농사' 프로젝트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소화천사의집 발달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살고 있다. 아르브뤼 작가가 된 이들은 전시회 오픈에서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났다. 어눌한 말투와 수줍은 얼굴로 떠들떠들 전시 소감을 밝혔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을 그려놓은 작품들이 갤러리 벽면 가득히 걸렸고 작품 아래에 작가의 이름들이 보기 좋게 붙여져 있었다. 함께한 이들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가족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미술 전시를 통해 세상과 단절된 이들이 건강한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발판을 찾은 것이다.

'오월어머니들의 그림농사'는 1980년 5월 가족을 잃은 어머니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미술 치유 활동이다. 어머니들은 매주 스케치북 위에 그림 농사를 짓는다. 가족에게 차려주는 밥상, 보름달 같은 내 얼굴, 한복 입은 자화상 등 다양한 주제로

살아온 이야기와 묵혔던 감정을 그림으로 풀어냈다. 한편의 그림이 완성되면 그림을 매개로 대화의 물꼬가 트인다. 서로 지난 세월 할 이야기가 많아진다. "나, 인기 좋았어. 동네에 한복 입고 나가면 휘파람 소리 좀 들었제" 어렸을 적 엄마가 지어준 한복을 그리다 웃음꽃도 피운다. "어머니들, 잘 살아오신 거예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 살아요. 감사합니다!" 주홍 작가는 인사를 건넸다. 모두 치유의 과정이다. 이 치유 안에는 미술이 있다. 궁극에는 예술 치유에 앞장서 온 주홍 작가에게 고맙다. 예술가가 선행을 지속할 수 있게 도움을 준 메세나 운동에 박수를 보낸다.

문화예술 메세나는 예술활동에 대하여 직접 후원하는 제도이다. 광주문화재단을 통하면 지정 기부금을 전액 예술가에게 전달하며,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준다. 기부는 예술의 힘을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부가 이어지길 바란다. 해외에서는 기업 사회 공헌 활동과 미술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해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기부를 통해 예술이 가진 사회적 역할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희망을 이어가는 예술이 될 수 있다.

올해 광주 사랑의 온도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2월 5일 기준 116도를 돌파하며 59억원의 성금이 모금됐다. 최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 모금이 어려우려 예상했다. 기후 위기와 재난, 사고 위험이 늘어나 시민의 몸과 마음이 얼어붙었다. 그러나 광주는 시민과 기업, 기관과 단체가 한마음이 돼 사랑의 온도를 높였다. 이것이 바로 광주 정신이다.

이번 미술 치유 기부 사례가 그 시작이다. 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과 나눔의 가치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길 바란다. 기부로 쌓인 따뜻한 마음이 광주를 더욱 건강하고 포용력 있는 도시로 만들 것이다. 예술은 단순한 장작이 아니라, 사회를 치유하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따뜻한 힘이 될 수 있다. 올 한 해 예술의 치유력을 강화할 수 있는 메세나 운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소망한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